동신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최선"

이주희 총장 취임 3주년

교육환경 개선·실무형 교과 강화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실현

이주희 총장

"동신대학교 글로컬대학30 본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이 오는 1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 총장은 "지난 3년동안 학생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동신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 때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대학 생활의 즐거움과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던 이 총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실무형 교과과정 강화, 글로컬 역량을 높이는 140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다.

'착한인재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교육을 강화해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TOGETHER형 인재'를 양성하고, 각 학과별 우수학생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동기부여하는 한편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학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성스런 교육의 성과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 2025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동신대의 취업률은 69.2%로 졸업생 1500명이상 대학 중 전국 17위, 광주·전남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총장은 또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실현을 위해 지역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빛가람기술사업화정책최고위과정 운영, 전남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리더십최고위과정 개설, 전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 총장은 총장 전남도와 RISE체계를 구축해 GRAND전남 실현을 위한 대형, 중형, 소형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당대-목포과학대와 연합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받고 현재 본지정에 주력하고 있다.

동신대연합은 '지역공공형 강소연합대학(UCC)'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스마트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남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UCC I-N-G캠퍼스를 통해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 기초자치단체의 기반 산업을 부흥시키고, 미래산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장은 국가 대학지원사업 선정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대학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 평가 A등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9년 연속 최고 등급,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에 이은 2025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선정, 파란사다리 1,2유형, 한일대학생 연수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글로컬대학30사업 본지정을 이끌어내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다"면서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평준화 일반고 전형에 중1 성적도 반영

시교육청, 내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 확정…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로

광주시교육청은 11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확정 공고했다. 평준화 일반고 44개교(과학중점고 4교 포함), 자율형 공립고 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특성화고 12개교, 비평준화 일반고 2개교 등 67개교의 입학전형을 담고 있다.

2026학년도는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되면서 평준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고 신입생 전형에서 2·3학년 성적과 함께 중학교 1학년 성적도 반영된다. 그 이외에는 전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배정하지만,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선발하는 일부 전기 고등학교는 전형이 변경된다.

광주예술고는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을 기존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에서 교과 성취도에 의한 절대평가 산출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국악과·한국화과·미술과는 중학교 내신 성적 위주의 특별전형을 폐지했다. 송원여자상업고는 2026학년도부터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철도전기과를 신설하고 기존 보건과와 영상디자인과는 2027학년도부터, 미용과는 2028학년도부터 남녀 학생 모두 모집을 시작한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공업고는 건축인테리어과 학급 수를 기존 2학급에서 1학급으로 축소해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과(7개 학과)가 각 1학급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금파공업고는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해 입학 단계부터 학과를 구분하는 '학과별 신입생 모집'을 도입한다.

각 학교 원서 접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광주형마이스터고 10월 20일, 광주예술고 10월 21일, 광주체육고 11월 3일, 특성화고 11월 24일, 자율형공립고·과학중점고를 포함한 평준화 일반고 12월 16일부터 시작된다.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8일이며, 배정 발표는 1월 22일에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원서 접수에 앞서 오는 9월 말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입생 전형 요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누리집(http://gen.go.kr),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https://jinhak.gen.go.kr), 해당 고등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대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평가 상위 1·2위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3개 BK사업 지원 대학 중 상위 1·2위 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대는 추가 사업비를 배정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평가에서 사업비 규모가 더 큰 대학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남대의 괄목할 만한 도약을 보여준다.

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 국책사업이다. 전남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이번 연차평가에서는 전남대가 BK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해 전년 대비 큰 발전을 이뤘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은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학문후속세대 육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제도를 정착하고, 학문 후속 세대의 학습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육과 연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장애·비장애 학생선수들 함께 '꿈나래한마당' 큰 울림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참가 전남교육청, 순천서 통합 해단식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9일 체육대회 통합 해단식 '꿈나래한마당'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이 지난 9일 체육대회 해단식을 하나로 묶은 '꿈나래한마당' 행사를 순천에서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해단식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해단식을 처음 통합해 열었다. 학생선수들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해단식에는 국회의원,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학생선수와 학부모, 학교장, 지도교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종목단체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출신 남수현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수, 임예지 복싱 국가대표 선수도 함께해 학생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출전 학생 1012명의 다양한 실화를 발굴해 연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생 개인의 성장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여정 등이 무대에서 진심으로 전해지며 큰 울림을 남겼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모두가 어울려 성장하는 통합 체육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 이러한 통합 체육교육의 가치는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과도 맞닿아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미국 트로이대학교와 협력해 'K-에듀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의 힘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선수들이 훈련하면서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지역과 동반 상생…성과 중심 모델 구축

RISE사업단 간담회

"인재를 키우고 기업 가치는 높이고, 대학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한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광주 특화 산업과 연계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과 동반 상생에 돛을 단다. 특히 동강대는 청년 일자리, 창업, 돌봄, 글로벌 오픈 캠퍼스 분야를 비롯해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며 현장 밀착형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강대 RISE사업단(단장 전영남)은 지난 8일 교내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광주RISE센터(센터장 김보현)와 대학 RISE 추진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강대 RISE사업단 전영남 단장과 위형도 센터장, 단위과제별 책임교수와 광주 RISE센터 김보현 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신청, 모든 과제가 선정돼 기획력과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 2월 'RISE' 사업을 대비해 가상공간 교육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설명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았고 'RISE'를 반영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도 공유했다.

'지역사회 GROW UP'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과 늘봄 싱크탱크 대학을 운영하고 광주문화예술·관광 도시 활성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